

## 보도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박명애, 변경택, 양영희, 윤종술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년 1월 30일(수)

담당 조현수 페이지 총 4매

제목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

*31년만의 변화를 맞는 '장애등급제'*

*하지만 장애인의 삶을 바꾸지 못 하고 껍데기만 바뀌는 '장애등급제'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친절히 설명할테니 만납시다!*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오전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1월 30일(수) 오전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제19회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세부실행계획과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그리고 오는 7월부터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방향 속에 '5대 분야/22개 중점과제/6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종합계획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 현안과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모두발언을 통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250만 개개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좋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5.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첫 번째 장애인정책 공약이자 최대 현안인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합계획과 별도로 추진계획을 함께 발표하였고, 이낙연 총리도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인 출발”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의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적했던 현안이기에,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2019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수립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과 지난해 9월 공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이낙연 총리가 강조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제규모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수준은 OECD 평균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산 확대의 구체적 계획이 빠진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18년(2조 2,213억) 대비 25.3% 증액(2조 7,825억)되었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예산증액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에게 체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탈시설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관련 예산 역시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나아지지 못 할 것입니다.

8. 이러한 가운데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논의’를 위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낙연 총리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고, 지난 1월 16일 “내부검토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토록 이송”이라는 회신(\*첨부자료 참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낙연 총리가 직접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정책추진은 단일 부처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총리가 직접 장애인의 현실을 바로 듣고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9. 이에 전장연은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1월 30일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당일 회의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와 더불어 이낙연 총리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에 따라 이낙연 총리를 직접 만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설명하기 위한 설날 직접행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여는발언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투쟁발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
투쟁발언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을 마친 후 면담요청 공문을 전달

"안주고 안받고 청렴하게 담당하게"



# 국무총리비서실

수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 4인 귀하  
(경유)

제목 민원(청원)처리결과 회신

1. 귀하께서 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하신 민원(2019.1.15, 접수번호 96)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논의 관련 국무총리 면담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내부검토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토록 이송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청원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③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국무총리비서실장



서기관 김양욱 행정관 전결 2019. 1. 16. 김창훈

협조자

시행 민정민원비서관-147

접수

우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206호

/ <http://pmo.go.kr>

전화번호 044-200-2819

팩스번호 044-200-2825

/ [kyw3266@opm.go.kr](mailto:kyw3266@opm.go.kr)

/ 비공개(6)